

# Abstract

## 시흥형 주거복지 "울터전" 사업

양민호(YANG MIN HO)

우리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 설문 및 포털사이트 등의 연관검색어, 각종 데이터를 통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통(Normal)의 주거환경에서는 휴식, 건강, 주요재산, 자기개발 (학습, 인격형성 등)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열악한(Bad) 주거환경에서는 스트레스, 자기개발 저해, 빈곤의 악순환, 범죄율 증가, 질병, 자기비하, 포기 등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는 비단 한 개인과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유지의 문제인 바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결국, 이러한 배경 하에 주거복지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개선을 기본으로 하되 정신적, 교육적 주거환경의 개선까지 염두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공공 정책일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시흥시는 인구 40만의 도농복합지역이다. 농업 외 섬유, 기계, 금속 등 제 2차 산업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다. 서울 등 주요 수도권의 지가, 임대료 상승에 따라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과 저임금 노동력 중심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국내외 저소득, 저임금 빈곤층들이 시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산업단지 주변에 소형평수 위주의 임대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비위생적인 환경, 범죄의 증가(비행청소년 등), 교육여건 악화, 낙후된 보육환경 등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시 전체로는 임대비율이 높고 자가 비율이 낮아 주거환경에 개선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 투자가 미비하고 산업단지 주변 일부 주거지역은 슬럼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코자 국고, 도비, 시비, 민간지원 등의 재정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흥시 주거복지는 크게 주거비 지원 및 주택개량으로 나뉘어 지며, 이는 주거급여 등의 현금지원, 수선유지급여 등의 현물지원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시흥시 주거복지의 목표는 '열악한(Bad)주거환경에서 보통(Normal)의 주거환경'으로의 회복이며 단순히 물리적(house)인 집의 개선이 아닌 정서적, 교육적, 개인발전이 가능한 정서적 집(Home)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는 단순히 나열된 사업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닌 고유한 주거복지 정체성 확립 및 전달 체계를 마련코자 시흥시주거복지브랜드를 마련하였다.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브랜드명칭을 정하였고 시흥시주거복지 고유의 심벌인 BI (Brand Identity)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주거복지정책의 특성에 따른 카테고리를 만

들어 활용하고 있다. 명칭은 '울터전(Our Sweet Home)'으로, '울'은 우리(시흥시 시민 전원), 울타리(개인, 사회 발전의 근간인 쾌적한 주거를 보장)를 의미하며 '터전'은 집, 가정, 삶의 근간 등을 의미한다. 결국,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 모두 행복한 본연의 집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 하겠다. 또한 울터전을 '씨앗터전', '더 나은 터전' '재생터전' '햇살터전' 등 복지정책의 특성에 따른 카테고리 로 나누어 체계 있는 사업관리를 하고 있다.

'씨앗터전'은 희망찬 삶의 시작점을 의미, 주거비 지원 사업등을, '더나은 터전'은 개인의 발전이 가능한 곳을 의미, 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등을, ' 재생터전'은 주거 환경, 시설물의 재생을 의미, 수선유지급여사업 등을, '햇살터전'은 난방확보, 에너지 절감으로 햇살하우징 사업등을 의미하여 4가지의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특히 시흥형 주거복지의 경우 자체적인 지원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대상자 만족도 또한 높다. 이런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시흥형 주거복지는 기본인 주거비, 집수리 외 사회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진행중에 있다.

현재 시흥시 주거복지 서비스는 주거비 지원으로 국고 및 도,시비 총 5,872백만원, 주택개량사업으로 가구당 100~1000만원 내외로 130가구 이상의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거복지센터등과의 연계를 통해 좀 더 많은 대상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중에 있다.

이처럼 시흥시는 선제적이고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자 중심의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검토중이다.

시흥시의 주거복지는 과도한 주거 부담으로 인구 재생산의 구조마저 흔들리고 있는 현 시점에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공공정책의 개입으로 개인의 주거가 상식적인, 기본이 서는 포용의 도시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흥의 주거복지는 화려한 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터전인 시흥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